

- 주요 뉴스: 미국 2개 지역은행 부실 대출로 손실 지역은행 전반의 신용 불안 우려도 제기
 - 연준 주요 인사, 금리인하의 필요성 강조. 마이런 이사는 빅컷(0.5%p 인하) 지지
 - 프랑스 의회, 총리 불신임 투표 부결. ECB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둔화 예상
 - 일본은행 다무라 위원, 인플레이션 위험 증가. 금리인상 여부 판단 필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美中 무역갈등 재점화 가능성, 일부 지역은행 부실 대출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지역은행 부실 대출에 따른 은행주 약세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은행주 및 식품 관련주 강세 등으로 0.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美中 무역긴장 증폭 우려,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역은행 신용 위험 부각 등으로 4월 이후 최저
독일은 프랑스 정국 안정 기대와美中 대립 경계감이 상충하며 약보합

※ 뉴욕 1M NDF 증가 1414.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16.9원, 0.07% 하락). 한국 CDS 강보합

		10/16일	10/15일	전일대비			10/16일	10/1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629.1	6,671.1	-0.63%	국채 금리 10y	미국	3.97%	4.03%	-5bp
	유럽	571.66	567.77	+0.69%		독일	2.57%	2.57%	-0bp
	중국	3,916.2	3,912.2	+0.10%		영국	4.50%	4.54%	-4bp
	일본	48,278	47,673	+1.27%	CDS 5y	한국	24bp	24bp	+0bp
	한국	3,748.4	3,657.3	+2.49%		중국	45bp	44bp	+1bp
환율	달러지수	98.35	98.79	-0.45%	위험 지표	EMBI+	-	294	-
	유로화	1.1687	1.1647	+0.34%		VIX	25.31	20.64	+22.63%
	엔화	150.43	151.05	+0.41%		WTI유	57.46	58.27	-1.39%
	위안화	7.1246	7.1270	+0.03%	원자재	구리	499.90	501.5	-0.31%
	원화	1,417.9	1,421.3	+0.24%		금	4,326.6	4,207.5	+2.8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2개 지역은행, 부실 대출로 손실. 지역은행 전반의 신용 불안 우려도 제기

- 지역은행인 자이언 뱅코프(Zion Bancorp)가 부실 대출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 구체적으로 자회사인 캘리포니아 뱅크 앤 트러스트(California Bank & Trust)를 통해 집행한 2건의 대출에서 약 50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채무자의 허위 진술 및 계약 불이행 등 사기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
- 또 다른 지역은행 웨스턴 얼라이언스(WAL) 역시 한 차입자가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을 지급받은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이러한 소식에 해당 은행의 주가는 모두 큰 폭 하락
- 이번 사태는 '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시작된 지역은행 위기와 근본적으로 상이. SVB 사태는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채권 포트폴리오의 미실현 손실의 문제였다면, 자이언 뱅코프와 웨스턴 얼라이언스의 경우는 대출 관련 사기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
- 하지만, 일부에서는 고금리 여건과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신용시장의 잠재적 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 또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한 지역은행 전반의 위험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등으로 투자자의 경계심이 증가
- JPMorgan의 다이먼 회장은 최근 일부 중소형 기업의 파산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마리의 바퀴벌레를 보면 더 많은 바퀴벌레가 존재함을 알 수 있듯이 시장 전반에 신용 부실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지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주요 인사, 금리인하 필요성 강조. 마이런 이사는 빅컷(0.5%p 인하) 지지

- 월러 이사는 최근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10월 FOMC에서 0.25%p의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 다만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할 때 양호한 경제 성장률과 고용 둔화의 괴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고 부연
- 마이런 이사는 10월 FOMC에서 0.50%p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져야 하며, 미중 무역갈등으로 좀 더 신속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

■ 미국 트럼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날 계획. 우크라이나 전쟁 논의할 방침

-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2주 이내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게시. 러시아 크렘린궁 측도 양국 정상직 전화통화는 2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고, 많은 주제들이 다뤄졌다고 설명

■ 프랑스 의회, 총리 불신임 투표 부결. ECB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둔화 예상

- 의회가 르코르뇌 총리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고, 전문가들은 총리가 내놓은 연금 개편안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 다만 상당 수의 야당이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한 긴축 예산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예산 합의에 난항이 예상
- 한편, ECB의 돌렌츠 위원은 내년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이는 금리동결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 코하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부근에서 움직일 경우 금리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

■ 중국 상무부장, 미국의 對中 무역 조치 비난. 외교부장은 양국의 의사소통 강조

-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조치가 자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 간 협상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비난. 양국은 평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왕이 외교부장은 양국의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발언

■ 일본은행 다무라 위원, 인플레이션 위험 증가. 금리인상 여부 판단 필요

- 다무라 위원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지금은 금리인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국면이라고 발언. 일본은행은 지난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나 다무라 위원은 금리인상을 주장. 당시에도 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지고 있어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 피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17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 9월 수입물가, 건설허가 및 주택착공
-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 ECB 나겔 위원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AI 버블, 미국 관세보다 글로벌 경제에 더 큰 위협 요인이 될 우려 - Financial Times

(The AI bubble is a bigger global economic threat than US tariffs)

-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글로벌 경기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으나, 당초 우려와 달리 글로벌 경제 성장은 다소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IMF). 이는 미국의 관세부와 시도가 실질적, 정치적 한계 등에 직면하는데 기인. 또한 예외조항 적용, 각국의 수출 다각화 시도 등으로 관련 영향이 제한
- 하지만,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AI 분야는 데이터 센터 장비에서 수입산 제품 의존도가 높다는 점과 낮은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관세보다 더 큰 우려 요인. 만일, AI 버블이 붕괴되면 이는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보다 글로벌 경제에 더 심각한 경기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 요구

■ 중국 주가의 상승, 가계 저축 증가美中 갈등 심화 등으로 위험 직면할 가능성 - 블룸버그

(China's Rebound in Household Savings Poses Risks for Stock Rally)

- 낮은 예금 및 국채금리 등 저금리 여건에서 투자자들은 증시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 이러한 가운데 중국 벤치마크 지수는 지난주 '22년 이후 최고치 기록. 하지만, 9월 중국 가계의 저축 증가(2.96조위안, 3월 이후 최대)가 확인. 이는 개인 투자자의 주가 지지 여력 약화 가능성을 의미이며, 동시에 주가 상승도 제동에 걸릴 소지
- 아울러, 美中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 증거금 예치에 사용되는 비은행 금융 기관의 예금 감소, 정부의 뮤추얼펀드 수수료 개정 예상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 최근 급등에 따른 주가 부담 등도 중국 주가 상승에 제약 요인. 이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등이 동반되며 주가 상승세가 제한될 소지

■ 주요 아시아 국가의 환율 개입, 美中 무역전쟁 심화 시 강화될 전망 - 블룸버그

(Currency Officials Go on Offensive as Trade Angst in Asia Mounts)

- 美中 무역전쟁 심화로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충격 우려가 제기. 이에 아시아 주요국은 ▲기준 환율 재설정 시도(중국) ▲일방적 환율변동 우려(한국) ▲안정적인 외환거래 필요성 제기(일본) 등 환율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
- 이러한 움직임은 각국이 자본유출 및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계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美中 갈등 격화 및 이에 따른 환율 변동 심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투자자들은 외환 당국의 추가 개입 여부에 유의할 필요

■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변동성 증가 등으로 금융 안정성 위협할 가능성 - 블룸버그

(Spread of Stablecoins Rings Alarms for Financial-Stability Risks)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당 자산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이에는 다음의 이유가 존재. 첫째, 스테이블코인이 유동성이 풍부한 국채를 담보로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급락할 경우 대규모의 국채 매도를 유발할 소지. 둘째,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된다면 은행 예금과 채권 및 레포 시장까지 관련 위험이 확산될 우려(IMF)
- 셋째, 개인의 스테이블코인 선호 증가는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 감소를 초래하며 대출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 내포. 넷째, 발행 주체 간 규제 속도 불균형 등으로 차익거래 여지 및 관리감독의 복잡성 초래(FSB)

■ 전세계 부유국, 정부 지출 증가 등으로 인플레이션 직면할 우려 - The Economist

(The rich world faces a painful bout of inflation)

■ 연준의 경제 전망 논의, 섯다운에 따른 데이터 부재로 의견 대립 심화 예상 - WSJ

(Shutdown Leaves Fed in Dark on Data as It Weighs Next Rate M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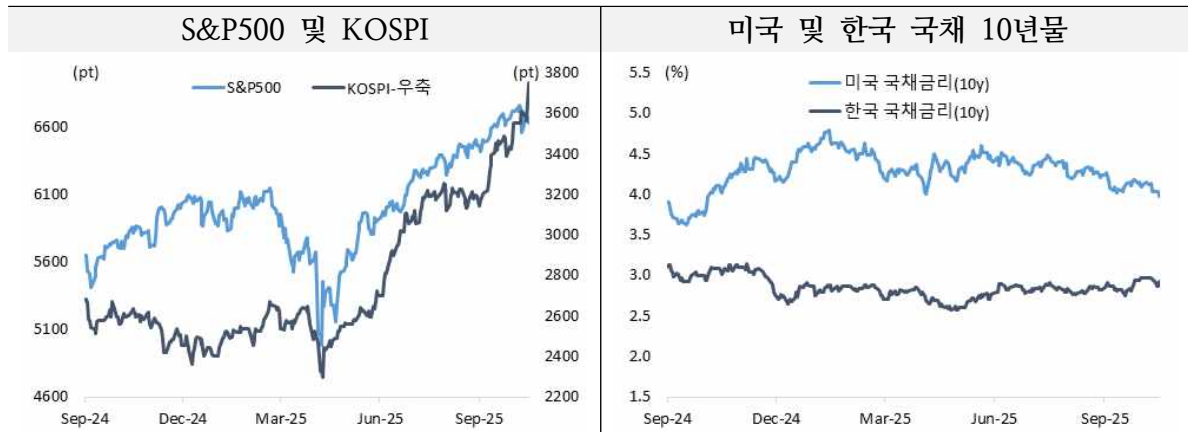
■ EU의 對美 수출 급감, 트럼프 관세로 인한 무역 여건 악화를 시사 - WSJ

(EU Exports to U.S. Drop Sharp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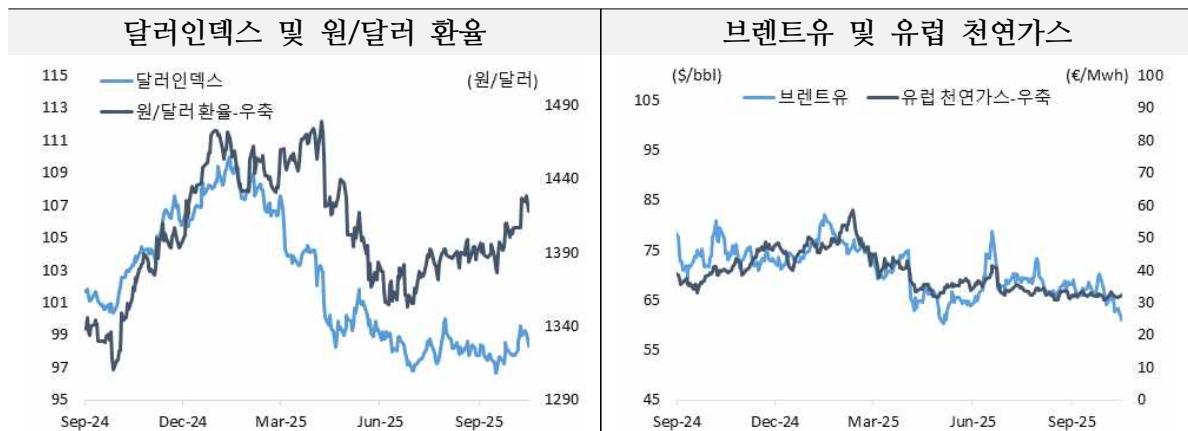
■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미국의 동맹국 지지 획득 기회를 제공 - 블룸버그

(Xi Rare Earth Shock Gives Trump Chance to Win Over US Allie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